

“오랫동안 한국에서 뛰고 싶은 바람 간직해와” 추신수, 전격 KBO리그행 결정

SNS 통해 직접 소회... SK 와이번스 인수한 신세계 야구단 입단

신세계 야구단에 입단하며 전격 KBO리그행을 결정한 추신수(39)가 “언젠가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바람을 오랫동안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고 결심 이유를 직접 밝혔다.

추신수는 23일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 소식이 발표된 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한국은 내가 태어나 자라고, 야구를 시작한 곳이다”며 “한국에서 뛰고 싶다는 바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으로 인수된 SK 와이번스는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의 야구단 매각·인수 본계약이 이뤄지는 23일 추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SK 와이번스는 2007년 해외와 특별지명에서 추신수를 1순위로 지명했고, 추신수에 대한 보유권은 야구단을 인수한 신세계그룹으로 넘어갔다.

신세계그룹은 프로야구 사상 최고 연봉인 27억원을 투자해 추신수를 붙잡았다. 추신수는 신세계그룹의 ‘영입 1호’ 선수가 됐다.

추신수는 “약 20년 전 나는 빅리그 선수가 되

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에 온 어린 소년이었다고, 메이저리그에서 뛴 기회를 열망했다”며 “꿈은 이뤄졌고 나는 16시즌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 큰 영광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나 혼자서는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코치와 스태프,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빅리그에서 보낸 멋진 시간들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추신수는 “고국에서, 부모님 앞에서 뛴 기회를 준 팀에 감사하다. 전 세계적인 재난에도 나를 불러줘서 고맙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를 믿어주는 팀과 나의 플레이를 보기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사람들, 늘 희생해주는 가족들을 위해 뛰겠다”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약속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추신수는 해당 글과 함께 시애틀 매리너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 등 자신이 거쳤던 팀에서 경기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추신수의 아내 하원미씨도 SNS를 통해 남편을 응원했다.

추신수의 사진을 게재한 하원미씨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의 열정을 위해서라면 항상 당신을 믿고 응원하고 힘이 돼 줄 No.1 팬”이라며 “얼마나 열심히 할지 안 봐도 아니 그 말은 생략하겠다. 다치지마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최고의 남자”라며 “다시 한 번 불꽃남자 신드롬을 일으켜봐요”라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추신수는 자가격리를 마치고 다음달 11일께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가 같은 날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를 공식 인수했다. 이마트는 이날 SK텔레콤이 보유한 와이번스 구단 지분 100%(보통 주식 100만주)를 1000억원에 인수했다고 공식했다. 이마트는 “야구단 관련 SK텔레콤 소유 토지 및 건물 매매 건은 향후 별도 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마트는 이날 KBO 회원 가입 신청도 완료했다.

창단식 등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1 KBO리그 시범 경기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구단 명과 구단 엠블럼 등을 확정해 창단식을 열 예정이다.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서에 사인하는 추신수. (사진 = 신세계 야구단 제공)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전국 대학 축구 최강을 가리는 '제57회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16강에 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전주기전대 제공)

전주기전대, 춘계대학 축구연맹전 16강 진출

무실점 3연승... 26일 16강전

전주기전대학 축구부는 전국 대학 축구 최강을 가리는 '제57회 춘계대학 축구연맹전'에서 16강에 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기전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남 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축구연맹전에서 3연승으로 가볍게 본선에 올랐다.

이 대회는 한국대학축구연맹이 주최하고 통영시축구협회가 주관하며, 총 81개 팀이 참가해 '통영기'와 '한산대첩기' 2개 리그로 나눠 진행된다. 예선 리그를 거쳐 각 조 1·2위 44개 팀이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경기 무관중 경기로 진행 중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주기전대는 1·2학년 선수로 구성된 수밖에 없는 전문대학임에도

무실점 3연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 18일 예선 첫 경기에서 중원대를 2대 0으로 이긴 전주기전대는 이를 뒤 열린 한국골프대학과의 2차전도 5대 0 완승을 거뒀다. 상승세를 탄 전주기전대는 전날 열린 3차전에서도 강호 여주대를 2대 0으로 눌렀다.

전주기전대는 오는 26일 16강전을 치를 예정이다. 결승전은 내달 6~7일 이들 간 통영공설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부 선수들의 부상으로 경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신입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며 좋은 실적을 냈다”고 말했다.

우경복 감독과 신재훈 코치는 “토너먼트부터는 상위권 대학과 겨우겨우 대개인 기량이 아닌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김광현·김하성 'MLB 올 시즌 주목 선수'

USA투데이 선정 100명 중

미국 메이저리그 2년 차를 맞는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빅리그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혔다.

USA 투데이는 23일(한국시간) 2021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알아야 할 선수 100명을 선정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축 시즌이 치러진 점을 고려, 메이저리그에서 100타석, 40이닝 미만을 소화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했다.

김광현은 8위, 김하성은 12위로 높은 순위에서 자리했다.

매체는 김광현에 대해 “한국 최고의 선발 투수였던 김광현은 낮은 마무리투수로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출발했다. 그러나 결국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3승무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하며 효과적인 투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광현은 팀의 2선발로 스프링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포스팅을 통해 지난달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은 김하성에 대해서는 “이번 오프시즌 가장 매력적인 국제 자유계약선수 중 한 명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재다능한 내야수는 2루수로 나서거나 수퍼 유틸리티로 활약할 수 있다. 김하성은 최근 2시즌 동안 49홈런, 56도루와 함께 타율 0.30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KBO리그에서 유격수와 3루수로 뛰었던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에서 2루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매체는 2021시즌 알아야 할 선수 1위로 외야수 랜디 아로사레나(탬파베이 레이스)를 선정했다. 아로사레나는 지난해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홈런(10개) 신기록을 세웠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